

일본의 양계소식

윤 병 선

한경대 친환경농림축산물인증센터 전임연구원
농학박사



산 란 계

신형 인플루엔자의 칠면조 감염에 따른 대책

농림수산성 안전국동물위생과장은 칠레에서 사람으로부터 칠면조에게 신형인플루엔자가 감염되었다는 소식에 따라, 일본양계협회에 인플루엔자 감염과 같은 질환을 보이는 종업원을 농장에 출입하지 않도록 철저한 위생관리를 하도록 요청하였다.

가금에 대한 신형인플루엔자의 감염방지를 위하여 농장의 관리자는 ①인플루엔자 감염 증세를 보이는 종업원이나 관계자(가족, 사료운반자, 약품공급자, 수의사 등)를 농장에 출입하지 않도록 하고 사람이나 차량의 출입 등에 관한 기록을 보존할 것, ②농장 종업원이나 관계자는 농장에 출입할 때에 항상 장갑, 작업화, 작업복 등의 착용과 함께 출입시 소독을 실시할 것, ③수의사는 인플루엔자 감염의 의혹이 있는 가금을 진찰할 경우에는 마스크, 장갑 등의 감염방지조치를 강구하고 다른 가금농장을 방문할 경우에는 용기 등의 소독, 의복교환 등 감염확대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방문한 농장에 관한 기록을 보존할 것을 부탁하였다.(일본양계협회 발췌)

계란내 접종기 「인테리젝트」 신발매

(주)야마모토(ヤマモト)는 미국의 아비텍크사가 개발한 계란내 백신접종기 「인테리젝트」를 신발매하였다. 이 접종기는 종계부화장의 (1)생산효율 향상, (2)취급이 용이한 디자인, (3)백신접종의 안전성과 우수한 위생관리, (4)비용절감, (5)유지관리 용이 등의 주요 특징으로

개발한 것으로 안전·위생적인 백신이 가능하게 된다.

1개 주사바늘의 고속 동작에 의한 종란의 난각에 구멍을 뚫어 백신을 접종하지만 각각의 계란의 크기에 맞추어 확실하고도 안전하게 접촉하면서도 계란이 깨지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다. 백신접종액은 용적측정 미세펌프에 의해 분배되므로 무리 없이 백신을 접종할 수 있다. 시스템 전체는 컴퓨터로 제어되어 전지에 의한 공기압력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전기모터가 필요 없고 터치스크린 방식으로 조절되어 사용하기 쉬우며 원격기계 진단이 가능한 특징이 있다.

접종기 주사 부분(인젝터)은 장기간 사용이 가능하며 1회 접종에 3가지 방법으로 소독(기계적인 세정작동과 인젝터 내 소독액을 통과시키고 외부는 스프레이 소독)하지만, 계란의 흡인컵(계량컵)은 계란 안에 압력을 가하지 않고 2차 오염을 저감하도록 설계되어 있고 분해하지 않아도 소독이 가능하다.

야마모토에서는 「인테리젝트」의 판매에 있어 종계부화장이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더 나아가 이 회사에서는 부화기 「체크마스터」의 일본총 대리점으로 부화기술의 노하우도 축적하고 있으며, 생산성 향상과 합리화를 위한 주변기기로 레이저 자동검란기 등도 보유하고 있다. 「인테리젝트」와 조합하여 부화중지란(孵化中止卵)이나 폭발란에 계란내 접종을 하지 않아, 2차 오염이 방지되며 강건하고 양질의 병아리 생산에 도움이 되므로 상담을 기다리고 있다.(계명신문 발췌)

육 계

일본산 사료용 쌀 급여시험

(독)가축개량센터 효고(兵庫)목장과 (주)아끼가와(秋川)목장은 생활클럽사업연합, 생활협동조합연합회 등과 협력하여 일본산육계 『하리마』를 이용한 일본산 사료용 쌀의 급여시험(실증시험)에 착수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닭에게 급여하는 사료용 쌀은 소, 돼지와는 달리 현미상태로 급여하여도 지장이 없다는 연구보고가 있으나 육계의 경우 산란계와 비교하여 주령이 어리기 때문에 정말 소화가 될까, 증체나 육성률에 나쁜 영향은 없는가, 현행 자동 급이기 시스템에도 고장을 일으키지 않는가 등의 의문이 사육자들로부터 있으나 현장단계에서의 적용은 거의 없는 상태였다.

2009년 1월9일부터 3월13일(30일~60일령)까지 10% 정도의 사료용 현미를 혼합한 사료를 약 9,100수에 『하리마』에 급여하여, 아끼가와목장의 생산농장에서 시험한 결과 육성률은 거의 차이가 없었으며 증체율과 고기맛(관능검사)에서는 오히려 우수한 경향이 있었다. 또한 자동 급이기에서 급여하여도 문제가 보고되지 않았다.

이번 결과에 대하여 가축개량센터 효고목장은 「앞으로도 더 많은 검증을 계속할 필요가 있으나, 이후에는 육용계에 대한 사료용 쌀 이용연구를 추진하는데 진일보 한 것으로 생각한다. 또한 2009년도에는 『하리마』에 대한 군마갱(群馬縣) 군마농협치킨푸드 등에서 또 다른 일본닭 품종인 『다츠노(たつの)닭』에 대해서도 이와테(岩手縣)의 (주)니

치레이후레쉬팜 등에서, 사료용 쌀 급여에 관한 연구가 계획되어 있다」고 말하였다.

육용 원종계 닭의 일본산 사료의 자급률 높이는 관점에서 개발·보급이 추진되어 온 일본산 육계 『하리마』와 『다츠노』에 대해서는 해외에서의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 등을 배경으로 한 사료의 안전보장의 관점에서 보급이 확대되고 있으나, 일본산 사료의 자급률 향상과 연결되는 사료용 쌀 운동과 연동한 형태로 더욱 보급이 확대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계명신문 발췌)

석회산포기 「마끼마끼산타로」 발매

(주)벳부코퍼레이션은 이번에 가볍고 편리한 석회산포기 「마끼마끼산타로」(특허출원중, 가격 189,000₩)를 발매하였다. 「마끼마끼산타로」의 본체와 각 부품은 내식성이 우수한 스테인레스 재질이며 원터치 조작레버로 차륜과 배출날개를 분리·결합 할 수 있어 사용이 쉽고 이동이나 산포 작업을 무리 없이 실행할 수 있다. 석회를 균일하게 산포할 수 있도록 배출구를 특수한 형상으로 만들었고 석회가 들어 있는 통의 뚜껑은 투명한 수지로 되어 있어 석회잔량을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다.

전체 길이(핸들 포함) 80cm, 높이 80cm, 폭 100cm, 본체중량 약 25kg의 간편한 설계로 차량 등에도 쉽게 적재가 가능하다. 산포 폭은 약 70cm로 1kg의 석회로 약 2m²를 산포(배출구를 완전히 연 경우)할 수 있다. 또한 노면으로부터 9cm 높이에 석회 배출구를 설치하여 산포 시 석회가 공기 중으로 비산하는 것을 최대한 방지한다.(계명신문 발췌) **양계**